

未來 社會에서의 女性의 位相

姜 文 姬

(서울女大 兒童學科)

1. 머리말

現代에 이르러 많은 여성들은 四重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어머니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家庭主婦로서의 역할, 그리고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이 그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職場女性들은 未婚의 여성에 국한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었으나 오늘날은 가정을 가진 既婚 女性들의 상당 수가 직업 세계에 뛰어들고 있어서 여성의 역할은 더욱 확장된 것이다.

이러한 女性 役割의 확장은 部分的으로는 그 원인을 現代 社會의 급격한 변모에 돌릴 수 있다.

첫번째의 변모는 現代 社會의 産業構造이다. 과거의 농경 위주, 소단위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서 現代는 産業 위주, 대단위 생산 구조로 변화된 것이다. 이러한 생산 단위의 변화는 직업의 細分化·特殊化·專門化라는 특성을 낳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다 많은 人力의 투입이 필요하게 되므로 인해 경제 생산 활동에 보다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두번째 변모는 家族構造의 변화와 관련된다. 잘 알려진 사실로서 산업화는 都市化와 離農 현상을 부추기게 되어 전통적인 大家族制度는 붕괴되고 부부 중심의 核家族化 현상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家族計劃으로 인하여 자녀의 수가 감

소됨으로써 가정 안에서의 女性의 전통적인 역할에 변화가 오게 된 것도 사실이다.

세번째의 변모는 價値觀의 변화이다. 産業化와 現代化로 결과된 開放社會는 個人에게 보다 광범위한 教育의 機會를 제공하게 되었고 個人의 自由意志와 平等 사상을 강조하는 가치관이 형성되게 하였다. 이러한 價値觀은 高等教育을 받은 女性에게 특히 그 파급 효과가 고조되었다. 즉 女性들은 男性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면서 社會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自我實現을 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자아 실현의 욕구를 성취하는 것이 여성의 인생에 중요한 가치관으로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社會의 변모는 現代를 살아가는 女性의 삶이 결코 과거의 女性의 삶과 유사할 수가 없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現代 女性의 삶이 결코 未來 女性의 삶과 닮은꼴이 될 수 없음을 유추시켜 주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高等教育을 받은 女性들을 중심으로 家庭에서나 社會에서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社會의 변천과 함께 그들의 역할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의 전망을 하면서 보다 바람직한 未來 社會에서의 女性의 位相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2. 現代 女性의 당면 문제

오늘날 고등교육을 받은 女性의 수가 증가하면서 高度의 훈련을 받은 유능한 여성들이 해마다 많이 배출되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個人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자기의 잠재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主婦의 역할이 第一次의인 역할인 것으로 간주되며, 직장인·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은 二次的이고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보수적인 사고 방식이 社會에 보편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교육받은 여성들은 스스로 가정 주부나 아니면 직업 여성이나의 역할을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1970 년대에 美國에서 女大生을 대상으로 Epstein과 Bronzaf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중 반 수 이상이 '결혼하여 자녀를 둔 직장 여성' 이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30% 정도는 '결혼하여 자녀를 둔 가정 주부' 이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즉 그 당시 여대생의 반 수 이상이 직장과 가정을 병행시키는 女性으로서의 삶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마 이러한 수자는 그 후 십여 년이 지난 현재에 조사를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수의 女大生들이 직장과 가정을 병행시키는 여성이기를 희망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직업 여성들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여성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 사실은 여성들의 역할이 家庭에만 한정되어서 수행되어 온 전통적인 여성의 役割과 女性像에 대한 修正과 補充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信號가 되기도 한다.

現代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家族制度나 가정 생활에서 미루어 볼 때, 대부분의 가정에서 女兒나 男兒에게 훌륭한 교육을 시키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교육 제도면에서 볼 때 남녀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靑少年期에 이르기까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大學을 卒業할 때까지 표면적으로는 男女間의 별다른 差等이 없는 대우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학교의 문을 나와 직장을

구하거나 또는 결혼하여 가정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들 여성에 대한 態度나 價値觀은 아직도 전통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된다. 따라서 現代의 高等教育을 받은 여성들은 그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과연 무엇이며, 또 社會가 그들에게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갈등과 고민과 문제점을 경험하게 된다.

한편,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직업의 종류를 생각해 볼 때 상당 수의 여성들이 판매업, 서비스업 또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노동부와 경제기획원의 자료에 의하면, 전체 취업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0%가 되지만 그중 전문직, 기술직, 행정 관리직, 사무직 종사자는 25% 정도에 불과하고 있었다. 특히 전문직, 기술직, 행정직 중에는 그 대부분이 교사, 간호원, 약사직에 편제되어 있어서 '여성 적합 직종'이라는 性 差別的인 社會 통념이 여성 취업에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취업 현황은 高等教育을 받고 있는 女大生들의 전공 분포를 볼 때 어느 한 곳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즉 1983년에 이루어진 자료에 의하면, 여학생의 전공 중 사범계가 27.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語文學, 理學, 藝術學, 社會科學의 순이었다. 남학생의 경우 工學이 31.5%로 가장 높고 다음이 社會科學, 語文學, 師範系 순인 것을 비교해 볼 때 여성의 고등교육 분야는 사범계나 어문학 등에 편중되어 있어서 여성교육의 문제점을 드러내 놓고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現代 女性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취업을 하고 가정을 가졌을 경우, 육아와 가정 관리의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家事의 문제는 他人의 도움에 의해서 상당 부분이 해결될 수 있으나 育兒의 문제는 他人의 도움만으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Bowlby(1951)가 고아원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을 중심으로 그들의 知能과 社會性의 發達을 조사한 결과 그들은 극심한 '母情缺乏症'에 걸려 있었으며 認知的으로나 情緒的으로 결함이 있었음을 주장한 이래로 유아기

에 있는 자녀를 가진 여성들의 사회 활동에 경중을 올려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Caldwell(1970) 등의 연구에 의해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반드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반대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어머니의 직업 유무 자체가 아동의 學校成績이나 行勳特性, 性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오히려 어머니의 교육 수준, 가정의 心理的安定度, 사회 생활과 가정 생활에 대한 만족도 및 代理母의 特性 등이 더욱 중요한 要因으로 兒童에게 作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몇 편의 연구 논문(이경희·1978, 강문희·1980)에서도 긍정된 사실들이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기혼 여성들의 사회 참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는 탁아의 문제라고 본다. 영·유아기의 어린이에게 각 發達 領域에 따른 적절한 교육과 보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설은 여성들의 社會·經濟的地位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하리라고 본다.

現代 女性들이 당면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사회의 法的 制度와 관련된 문제이다. 家族法이나 노동법이 女性에게 不平等하게 적용되므로 인해서 여성들은 家庭에서나 職場에서 갖가지 부당한 위치에 서게 된다. 採用時의 男女差別, 不平等한 승진, 불균등한 실급 제도, 女性에게만 해당되는 결혼 퇴직 제도 등이 그 예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法的 지위의 열등함은 女性들의 意識 세계에까지도 침투하게 되어 女性 스스로가 자신을 열등한 人間으로 취급하게 됨으로써 自我實現에 저해 요소가 되게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現代 女性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시정·개선되지 않는한 未來 社會의 女性像은 어둡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이다.

3. 未來 社會의 特性

未來 社會를 예측해 본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김형덕(1987)은 미래 사회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그 특징을 기술하고

있다.

첫째, 미래 사회의 특징은 개방 사회라는 데 있다. 開放社會란 ‘個人的自由와 權利를 보장해 주는 사회이며, 個人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社會’이다. 開放社會의 특징은 意識의 開放化이다. 즉 社會·文化的 편협한 편견에서 벗어나서 合理性에 기초한 자율적인 선택과 결정을 중요시 하는 사회인 것이다. 개방 사회의 특징은 또한 기회의 開放化이다. 性差에 기초한 기회의 불균형·불평등에서 벗어나서 個個人的 의지와 욕구에 따라 교육, 직업, 사회 참여의 기회가 광범위하고 개방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인 것이다. 개방 사회의 또 다른 특징은 정보의 開放化이다. 의사 소통이 단절되고 일방적이며 非合理的이었던 상태에서 벗어나서 정당한 個人的 요구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전달되며 소통되고 각종 정보를 입수하여 個人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는 사회인 것이다.

둘째, 미래 사회의 특징은 통합된 사회라는 데 있다. 産業 社會로의 변동과 함께 고도의 기술 발달은 노동의 分化와 직업의 細分化를 더욱더 촉진시킬 것이며, 이러한 직업의 세분화는 사회 구조의 分化를 자극할 것이다. 미래 사회는 이러한 다양화된 사회의 구조를 흡수하고 갈등을 해소하여 통합된 사회를 이루도록 할 것이다. 통합된 사회는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요구를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흡수하고 해결하는 사회이다. 따라서 性이나 계층에 기초를 둔 편협된 가치관이 재조정되고 相互共存과 個人的 발전을 위한 상호 지원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이 발달될 것이다.

셋째, 未來 社會의 특징은 人本主義的 사회라는 것이다. 現代化의 과정에서 파생된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가치관의 혼란, 그리고 대량 생산 체제로 인해 야기된 個別的 特性의 무시 현상은 現代人的 생활 양식을 非人間化로 치닫게 하였다.

따라서 미래 사회에서는 人間の 本性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고려하게 될 것이며 人間の 존엄성을 강조하고 삶의 質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팽배하여 자유와 정의에 기초를 둔 人本主義的 社會가 고양될 것이다.

4. 未來 社會의 女性

앞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現代의 여성들은 전통적인 가치관에 얽매인 女性像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역할, 女性이기보다는 먼저 人間이고자 하는 강력한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향은 직장이나 사회에서 男女間의 평등한 대우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가정에서의 역할까지도 再考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Erich Fromm은 “人間은 선택하는 것보다는 전통을 좋아하며, 애매한 것보다는 미리 결정된 것을 좋아한다”고 지적하면서 인간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일면서도 막상 자기 자신이 이 새로운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단계가 되면 대부분은 새롭고 불안정한 것보다는 전통적이고 안정된 것을 따르게 되는 경향이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즉 知的·理論的으로 가장 理想的인 것을 상정하기는 쉬워도 이것을 실천에 옮기거나 자신의 것으로 소화·흡수시키기는 어려움을 강조한 말이다. 따라서 未來 社會의 女性의 位相을 이 글에서 理論的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으나 理論만이 아닌 실제의 행동으로 완전히 표면화되기까지 얼마 동안의 세월이 걸릴 것인지를 추측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몇 년 후, 또는 몇 십 년 후라는 연수의 추정은 생략하고 다만 未來라는 표현으로 未來 社會의 女性의 位相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

1) 여성 意識 構造의 변화

개방 사회의 도래와 함께 女性의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태도와 낮은 自我尊重感이 美德으로 간주되던 價値觀에 변화가 오게 될 것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각종 정보를 토대로 하여 자발적인 의사 결정과 自律性이 강조되게 됨으로써 여성은 父權 社會에서 볼 수 있던 남성에 대한 의존심과 열등 의식을 극복하고 자기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男性과의 自由 경쟁에 의해 각자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자아 실현의 기회를 보다 많이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女性의 열등 의식의 극복은 女性의 경

제 활동, 정치 활동, 교육 활동 및 家庭生活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또한 社會 全般에 걸쳐 女性에 대한 편견을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여성 社會 參與의 변화

여성이 강한 自我實現의 욕구를 가지게 되고 社會의 각 분야에서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平等의 원칙에 입각해서 女性 人力 활용 방안이 立法化되어야 한다. 아마 未來 社會의 女性들은 고용에서부터 승급, 승진, 퇴직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받아온 性差에 기초한 差別 대우를 그대로 묵인하고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男女 고용 평등법이 단지 법적 장치로서뿐만 아니라 고용주들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실제적인 제도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성 당사자뿐 아니라 기업인, 정책 입안자, 全般的인 社會人の 의식 구조에 女性을 다만 女性으로서가 아니라 人間으로서 보고 대우하려는 價値觀을 고양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식 구조의 변화를 전제로 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는 그 활동의 범위나 질적인 면에서 큰 변화를 가지게 될 것이다.

첫째,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현재 중학교 수준까지는 男女의 취학률에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고등학교 이후 大學生이 되었을 때, 1983년 현재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25.8%로 男大生의 $\frac{1}{4}$ 선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시한 장기 전망으로는 1991년까지 여성 고등교육의 인구를 40% 선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아마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男女 大學生의 비가 50:50으로 발전할 전망을 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단순한 교육 기회의 확대뿐 아니라 전공 분야면에서도 교육, 예술, 간호원 등 전통적인 여성의 직종에 한하지 않고 理學, 工學, 첨단과학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고른 분포를 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여성의 경제 활동이 확대될 것이다. 여

성이 高等教育을 받을 기회가 확충되면서 여성들은 자기의 能力, 관심, 흥미를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는 직업을 찾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하기 전에 잠시 머물다 가는' 직장이 아니라 生涯職으로서의 개념을 가지게 될 것이다. 각 직장에서의 女性의 위치는 단순직, 노동직의 비율이 감소하고 전문직, 관리직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장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직장의 꽃'이 아닌 하나의 철저한 職業人으로서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망될 것이므로 종전의 안일하고 의존적인 태도는 지양될 것이다.

세계, 여성의 정치 참여가 보다 능동적으로 될 것이다. 지금까지 家父長制度에 익숙해 온 女性들은 정치에 무관심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오며 수동적인 입장에 처해 있었다. 民主社會의 발전은 여성의 투표권과 정치 활동을 보장해 주고 있으나 아직도 정치 활동에 主役으로서 참가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未來社會에서는 女性의 地位가 향상되고 性差에 의한 편견이 불식되며 女性의 정치 의식이 높아지면서 보다 많은 女性 政治家와 전문적인 정치가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선거구에서 활약하는 여성 정치가가 증가하며 여성 당원들의 정당 참여로 정책 입안에 영향력을 끼치는 파워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3) 家庭에서의 役割의 변화

現代社會에서의 價値觀의 변화는 가족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가족의 규모가 극소화하는 경향을 두드러지게 보여 주고 있다. 두 자녀 갖기에서 한 자녀 갖기로 점점 변화됨에 따라 여성들은 育兒의 역할에서 과거에서보다 빨리 벗어나게 된다. 또한 기계 문명의 발달로 家事의 처리가 自動化됨에 따라 女性들의 노동력은 가사와 육아 이외의 일에 자연스럽게 돌려지게 된다.

人口保健研究所(1985)의 전망에 의하면, 1960

년대에 가구당 자녀의 수가 평균 6.0명이었던 데에서 1984년에는 2.4명으로 감소되었으며, 1988년에는 2.1명으로 2000년에는 1.9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1975년 통계에 의하면 가정에서 막내아이가 국민학교에 입학하는 시기가 평균 주부의 연령 37.1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평균 생활 연령을 69세로 보았을 때 30여년의 세월에 대하여 여성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기존 여성들의 취업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며 평생교육이나 봉사 활동 등을 통해 自我開發을 하려는 요구 또한 높아질 것이다.

家事는 여성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家族構成員의 분담으로 처리될 것이며, 兩性의 性役割이 강조될 것이다. 이에 따라 男兒選好思想이 점차로 퇴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사회 변동에 입각한 未來 女性의 位相을 간략히 살펴 보았다. 未來社會의 女性은 보다 창의적이며 理性的인 思考力을 가지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性에 기초를 둔 모든 差別 대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적·사회적·가정적 次元에서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차원에서 보다 깊은 관심과 배려가 요청된다. *

〈참 고 문 헌〉

- 강문희, "어머니의 職業 有無가 子女의 性格에 미치는 영향", 서울女大 論文輯, 1980.7.
- 경제기획원, 경제 활동 인구 연보, 1985.
- 노동청, 한국 노동 통계 연람, 1985.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 발전 기본 계획", 1985.
- 한국인구보건연구소, "2000년대를 향한 장기 전망", 1985.
- Kim, Hyung-Deok, *The Challenge and Preparation for the future Society*, Women's Studies Forum, KWDI, 1987.